

# “서남권 관광 콘텐츠 개발 힘써달라”

### 김영록, 천사대교·목포 케이블카 관광산업 도약 한전공대 밑그림 조기 수립·전남형일자리도 발굴

김영록 전남지사는 12일 “천사대교와 목포 케이블카 개통 등으로 전남 서남권 관광산업의 도약 계기가 마련된 만큼 이같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콘텐츠 개발에 힘써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설을 전후해 7일 동안 임시 개통한 천사대교의 이용 차량이 무려 4만 5천여 대나 되고, 이 가운데 관광

객이 65%를 차지해 예상보다 많았다”며 “3월 말 정식 개통되고, 목포 해상케이블카가 4월부터 운행하면 봄철 관광시즌과 맞물려 서남권에 많은 관광객이 집중해 관광 혼잡이 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기회를 활용해 관광객 집중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문화관광 콘텐츠가 중요하며” “관광 및 도정 이미지 홍보가 중요한데 아직까지 마스터플랜 보고가 될 때가 없다. 관광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국도77호선 단절구간인 압해-화원, 화태-백야 간 연결사업 등이 선정되고, 경전선 전철화사업이 예타 재조사 사업으로 명시돼 사실상 2조 9천억원의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의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사업이 예정보다 앞당겨 완료되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한전공대와 관련, 마스터 플랜을 조기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 공과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전남도,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우선 마스터플랜 조기에 수립토록 하고, 정부에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도가 앞장서 실현되도록 하는 등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전남형 일자리’ 발굴도 지시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분궤도에 오르면서 한국경제의 새 모델이 될 것으로 환영받고 있는 만큼, 도에서도 정부 일자리정책에 맞춰 전남형 일자리를 발굴해 새로운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이러한 제조업의 토대 위에서 서비스산업과 관광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도청원기자 rep0333@srb.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1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천사대교 개통은 전 국민의 관심 대상이므로 관광문화 콘텐츠 발굴과 전남 관광 이미지를 홍보하는 종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극히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광주 일자리위원회, 현장 소통 강화한다

### 민간위원 중심 운영 체제·일자리 정책 컨트롤타워로 개편

광주시가 올해 일자리위원회 주도로 현장 밀착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 민선 7기 일자리로드맵 수립 등 일자리 중심 시장운영 기반을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일자리 사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확대한다.

우선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현장형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민간위원 중심의 운영 체제 전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 추진 ▲현장 소통, 정책 수립·평가 모니터링 역할 강화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통한 분과위원회 활성화 등을 시행한다.

‘현장중심의 일자리 혁신투어’도 추진한다. 민간 부위원장 중심으로 일자리위원회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매일 일자리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의 일자리 정책제언들을 직접 듣는다.

일자리사업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 홍보도 개선한다. 언제 어디서나 일자리사업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모바일을 통해 일자리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광주시 유튜브 등 SNS 플랫폼에 동영상 설명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듣고, 묻고, 만드는 분야별 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일자리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류성훈기자 rsh@srb.co.kr

# 광주시, 어린이집 단체보험 가입 지원

### 1천195곳 대상 4억2천만원 지원

광주시가 3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어린이집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가입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어린이집 1천195곳이다. 광주시는 4억2천만원을 지원해 이달말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4만5천여 명과 보육교직원 1만700여 명이 3월1일부터 2020년2월28일까지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생명 및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집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다 부모 등 가족이 다쳤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제3자 치료비특약’을 추가 가입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가입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보육교직원상해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제3자 치료비 특약 등 6개다.

주요 보상범위는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의 경우 1인당 최대 4억원이며 치료비의 100%다. 돌연사증후군 특약도 1인당 1억원, 보육활동에 참여한 제3자의 치료비 1인당 300만원 등 가입 항목별로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ksh430@srb.co.kr

# 김 지사, 7개월 연속 직무수행평가 ‘1위’

### 리얼미터 1월 평가... 이용섭 시장은 지난달 이어 4위 유지

김영록 전남지사가 6개월 연속 직무수행평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4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유지했다.

12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1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김 지사는 응답자의 58.4%로부터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조사보다 긍정평가가 2.5%p가 감소했지만 7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 시장도 지난달(52.3%)에서 1.0%p

가 줄어든 51.3%로, 지난달에 이어 두달 연속 4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당선 시기에 비해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어느 정도 확대했거나 잃었는지를 비교하는 ‘주민지지확대 지수’에서 김 지사는 중위권인 9위(75.7점, 77.1%→58.4%)를, 이 시장은 최하위인 17위(61.0점, 84.1%→58.4%)에 머물렀다.

전국 교육감 직무평가에서는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한 단계 하락한 2위를 차지했다.

장 전남도교육감은 지난달(51.1%)에 비해

1.9%p 감소한 49.2%를 기록, 김승환 전북도교육감(53.7%)에 이어 2위에 머물렀다.

지난달 12위에 올랐던 장휘국 광주시교교육감은 0.8%p 하락한 39.6%로 한단계 하락한 13위로 조사됐다.

한편 리얼미터의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7천명(광역 시도별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광역 시도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3.1%p, 응답률은 5.8%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LPG화물차 구입 400만원 지원 광주시, 노후경유차 폐차 해결

광주시가 생계형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올해 사업규모는 총 40대다.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28일까지다. 광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생계형 소유자를 우선 선정한 방침이다.

# 이석형·배중호, 민주당 복당 허용

### 전남도당, 당원자격심사위 열어 결정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과 배중호 세한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12일 도당 회의실에서 제5차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당자위)를 열고 최근 복당을 신청한 이 중앙회장과 배 교수에 대해 복당허용 결정을 내렸다.

이 중앙회장은 지난 2014년 산림조합중앙회장 취임을 이유로, 배 교수는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면서 탈당한 바 있다.

도당 관계자는 “이석형·배중호씨의 경우 당자위들이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2시간여에 걸친 격론 끝에 복당을 허용키로



이석형 배중호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중앙회장과 배 교수와 함께 복당신청을 했던 8명 중 4명은 탈당 및 복당 사유가 불분명한 점을 들어 보류 처분이 내려졌다.

[www.mdilbo.com](http://www.mdilbo.com)

## “무등일보 구독은 지역사랑의 실천입니다”

■지방지사 안내			
지국명	전화번호	지국명	전화번호
목포	282-3500	보성	852-6633
동목포	244-4078	화순	374-8848
서목포	283-9336	강진	433-6533
남악	283-1540	해남	533-8811
순천	721-7788	무안	454-0038
나주중부	333-3771	함평	324-1332
담양	383-8111	영광	352-1525
곡성	362-2112	여수	662-6910
완도	552-1070	동여수	642-0051
진도	544-2223	영암	471-7146
신안	278-7332	장흥	862-8383
고흥	833-7875	구례	782-9854
장성	392-3000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 062-606-7776

◆ 광고문의 : 062-606-7772

무등일보